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조명과 신앙교육*

정 현 숙

수원대학교

〈요 약〉

아우구스티누스는 ‘빛’을 단순한 문학적 비유나 상징을 넘어서 교육과 신학의 핵심 개념으로 도입하여 그의 독창적 학설인 ‘신적 조명설(divine illumination)’을 제안하였다. 그의 대표적 교육관련 저술인 『교사론』에서 경험적 사실에 관한 앎을 ‘지식(scientia)’이라 하고, 영원 불변한 진리에 관한 앎을 ‘지혜(sapientia)’라고 분류했다. 지혜의 교수학습은 실물을 보여주거나 기호와 언어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혔다. 영원불변한 보편적 진리는 모든 학습자의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통된 관점이다. 플라톤은 전생의 기억을 회상한다고 보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생을 부정하고 그 대신 하느님이 은총으로 빛을 비추어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기억해낸다고 하는 신적조명 교수학습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의 신학사상은 『삼위일체론』에서 제시되었는바, 이와 교육사상의 연관성은 인식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 하느님의 삼위일체가 인간 지성의 인식론적 삼중구조에 혼적으로 주어졌다는 그의 창의적 관점이다. 한편 ‘빛’과의 관계는 사물의 인식에서 ‘태양의 빛’이 있어야 하듯이 궁극적 진리를 인식하는 데에서도 ‘하느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느님의 빛이 진리의 신앙적 측면이나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은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신앙교육의 기본 원리를 신적조명설을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지혜교육’에서 신적조명의 의의를 현대사회의 신앙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고찰 하였다.

핵심주제어: 신적조명, 지혜, 신앙교육, 지식, 삼위일체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수원대학교 교내 학술진흥 연구비 지원에 의한것음.

I. 서론

빛은 모든 생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천이고, 사물을 파악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빛이 없는 어둠은 두려움을, 어둠속의 한 줄기 빛은 희망과 안도를 준다. 빛은 물리현상에서나 생리현상에서 근원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 현상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문학적인 비유나 다양한 종교의 문헌에서 빛은 밝음, 깨달음, 지혜, 선(善)의 상징으로 쓰인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세상의 창조를 ‘빛이 있으라’고 시작한 것이나 불교에서 염불의 대상인 ‘아미타불’이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을 의미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고, 요한복음 1장의 “그분은 생겨난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빛의 종교적 상징성을 드러내는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빛은 많은 종교에서 깨침의 상징이다. 플라톤의 대표저술 ‘국가론’에서 동굴의 비유는 어두운 동굴은 깨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동굴 밖의 태양 빛은 진리를 상징한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본래 불성(佛性)을 보지 못하고 고행에서 윤회하는 근본원인을 밝음이 없음 즉 무명(無明) 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징이나 비유로서의 빛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철학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빛’을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학설을 창안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겠다. 그는 ‘신적조명(神的照明, divine illumination)’이란 개념을 그의 초기 저술인 「행복론」, 「자유의지론」에서 이미 보이고 있으나 「교사론」에서 교수학습이론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추구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 통념으로는 교사가 실제 물체나 기호인 언어를 통해서 학생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피상적 관찰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한 것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진리는 학습자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것을 회상(recollection) 할 뿐이라는 회상설을 내세웠다. 이미 알고 있는 이유는 전생(前生)에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생을 부정하고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만 학생이 보지 못할 뿐인데 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을 받아 진리를 다시 보게 되며 이것이 곧 지혜의 학습으로 이를 신적조명설(神的照明說) 이라고 한다.

그의 신적조명설은 교수학습론으로서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과 일관되게 정합되는 연결고리이다. 그래서 그의 후기 저술인 「교백록」과 「신국론」 특히 대표 신학적 저술인 「삼위일체론」에서 핵심 개념으로 계속 발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조명설을 먼저 교수학습론의 관점에서 지식과 지혜의 학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에 후기저술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인식론적 3중 구조의 기반으로 신적조명을 고찰한다. 현대 교육의 지식 편중 현상을 혁

파하기 위한 지혜 교육으로서 하느님 신앙교육의 기반으로서 신적조명설의 의의를 논한다.

II. 지혜와 지식

인간의 삶을 그 대상에 따라 지혜(wisdom, sapientia)와 지식(knowledge, scientia)으로 구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식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존재론과 인식론 체계를 간략히 요약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실재(reality)를 3단계로 나누어 하느님(God) - 영식(Soul) - 물체(Bodies)의 3위계 설을 세웠다.¹⁾

이 3위계의 실재에 따라 각각 이지(理知, ratio)가 대응한다. 하느님의 ‘신적이지(rationes aeternae)’는 하느님의 정신(mind)에 있으며 불생불멸로 영원불변이다. 생멸하는 가변적 개별자들은 이것을 모형으로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 모형이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도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설계가 있었으며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원형이자 존재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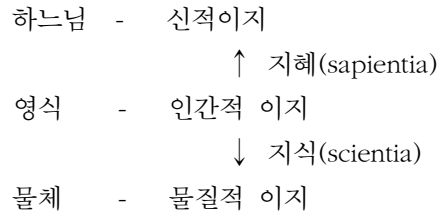
인간의 영식(soul)은 중간단계의 실재(reality)로서 여기에 갖추어진 이지를 ‘인간적 이지(ratio hominis)’라 했다. ‘인간적 이지’는 ‘신적이지’로부터 신적 조명(divine illuminatio)을 받아 하느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실재의 가장 낮은 위계인 물체(bodies)에 대응하는 이지(理知)는 물질적 이지(rationes seminales)로서 사물에 있는 원리나 법칙에 해당한다. 하느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신적 이지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물에 원리가 잠재된 것인데, 인간적 이지는 신적 이지를 닮았으므로 이를 알 수 있다.

인간적 이지는 하느님의 신적 이지와 물질적 이지의 중간에서 양쪽을 향하여 두 이지로 기능한다. 위로 하느님을 향하여 영원불변의 삶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지혜(wisdom, sapientia)’라 한다. 반면에 아래로 가시적 사물들에 관한 얻는 것은 ‘지식(knowledge, scientia)’이라 한다. 지혜는 신앙적 체험이나 영성(靈性) 직관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수학적 진리와 같은 것들을 영원불변 진리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 지식 체계를 도식으로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Soul 은 영(靈) 또는 혼 으로 번역함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삶의 관점에서 논의되므로 영식(靈識)이라 했으며 이 논문에서만 사용한 용어이다.



이러한 지식 체계는 『삼위일체』에서 인간의 심리적 구조에서 위계의 세분화와 관련된 다. 물질 세계를 향한 인간의 영식을 ‘외적 인간’, 하느님을 향한 영식을 ‘내적인간’으로 구분 하였다. ‘외적인간’은 감각기능을 최하위로 감각정보의 기억을 그 위에 두도록 세분되었다. ‘내적인간’은 가변적 사물에 관한 지적 활동을 지식(scientia)라 하였고, 영원불변의 진리에 관한 것을 지혜(sapientia)라 하였다. 그러므로, 4단계의 지적 활동이 있는바 감각, 기억(memory), 지식(scientia), 지혜(sapientia) 순으로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이런 심리적 관점에서 지식과 지혜는 ‘내적인간’의 이지(ratio hominis)이다.

존재론적 이지의 3 위계에 대응하여 인식론적 위계 역시 3가지 관(觀)으로 나눈다. 가장 낮은 인식은 빛으로 물체를 보듯이 5감으로 사물을 감지하는 것이며 이를 색관(色觀, corporeal vision)이라 한다. 이는 존재론에서 물체(bodies)에 상응하는 인식이다. 두 번째 위계는 영식관(靈識觀, spiritual vision)으로 존재론에서 영식(soul)이 하는 관(vision)이다. 이 관은 사물을 보고 그 형상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은 지성관(知性觀, intellectual vision)이며 하느님의 진리, 영원한 이데아를 보는 능력이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이어 그의 교수학습론의 관점을 살펴 보겠다. 존재론과 인식론의 3 위계설에 바탕하여 볼 때 앎(지식과 지혜)의 학습 가능성은 지혜 뿐 만 아니라 지식에서도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의 지성관(intellectual vision)에 바탕해 있다. 지혜의 경우는 하느님의 영원불변하는 진리를 보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성관에서만 가능하다. 지식은 가변적인 피조물들에 관하여 5감으로 정보를 얻어서 감각정보의 저장, 회상, 연산등의 두뇌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식(soul)이 물체(bodies)에 대해서 얻는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감 정보의 단순한 집적은 아니다. 현대적 기술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지식은 컴퓨터의 정보처리 활동 이상의 어떤 것이다. 그 어떤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 주어진 이지(ratio hominis)중 상등 이지(ratio superior)라 불렀다. 이 상등 이지는 영원불변의 이데아에 근거한 것이다. 즉 신적 이지가 인간에게 비추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식(scientia)은 가변적 물체에 관한 정보와 불변적 이데아의 판단이 함께 들어 가능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가변적 지식 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 즉 하느님에 관한 지혜를 얻어야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지혜에 속하는 것으로 오늘

날과는 달리 수학적 진실들, 음계의 조화관계, 도덕률 등 보편 필연적이라고 여겨지는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혜의 일반적 영역은 플라톤의 이데아,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한 원리, 하느님의 마음 즉 신적 이지이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지혜의 대상은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지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일반적 기술처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명저 『교사론』에서 다룬다. 『교사론』의 핵심은 언어 또는 기호로서 지혜는 학습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혜는 학습자의 마음에 하느님의 빛이 비취짐으로서 가능하다는 그의 독창적 학습이론 즉, ‘신적 조명설(divine illumination)’이 제시된다.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수학습론과 신적조명

1. 실물과 언어에 의한 교수학습의 불가능성

지적 교육의 활동은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가르치거나 배우는데 말과 글이 없다면 그 효율성은 지극히 낮을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관찰에서 교사는 언어를 통해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론』에서 이러한 피상적 사고에 대한 예리한 성찰을 제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어가 지식을 가르치는 기호들 중 하나인 점을 논한 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즉 언어 없이 실물(實物)을 써서 직접 가르칠 수 있는가 이다. 『교사론』에서 실물을 언어 없이 가르치는 예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

어거스틴 : 만일 내가 너에게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묻고 네가 일어서서 걷는 동작을 한다고 하면, 너는 내게 말이나 다른 기호를 써서 가르치고 있다기 보다는 그 실재 자체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테오다투스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기호에 의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 알 수 있는 많은 사항이 지금 생각 납니다. 예를 들면 마시는 것, 서는 것, 부르는 것, 등등, 기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²⁾

이 경우 ‘걷는 것’, ‘먹는 것’ 등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인

2) A. Augustinus, *De Magistro*, III. 6., 김영국역, 『교사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178쪽.

다. 그러나 ‘걷는 것’이란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르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어거스틴 : 자, 내게 대답해 보아라. 만일 내가 ‘걷는다’란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걷고 있는 내게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면 너는 어떻게 나에게 가르치겠니?

아데오다투스 : 아버지의 질문 후에 새로운 요소로 아버지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는 같은 동작을 좀 더 빨리하여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 동작 이외의 동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 : 너는 걷는다고 하는 것과 서두른다는 것은 별 개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왜냐하면 걷고 있는 사람은 즉시 서두르지 않고, 서두르는 사람은 반드시 걸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들은 “서두르다”라는 것을 쓸 때에도, 읽을 때에도, 그 밖에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은 경우를 입에 올리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질문한 다음 네가 그 때까지 하고 있던 동작을 전보다도 더 빨리하게 되면 나는 ‘걷는다’고 하는 것은 ‘서두른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새로 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오해해 버리게 될지도 모르지.³⁾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논의의 결론으로 실물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언어 없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준다. 실물은 언어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교육내용이 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다. 지식 전달에서 언어의 사용은 필수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해서 교수학습이 가능해진 것일까?. 이제 ‘언어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논지를 살펴 보자.⁴⁾ 그 논지의 핵심은 다음 파라독스이다. 학생이 교사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면 그 말을 아무리 반복해서 들려주어도 알 수 없다. 반대로 이미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교사의 말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배운 것(학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말은 우리가 대상을 탐구하도록 주의를 촉구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도록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내 눈에, 즉 육신의 감각에, 그리고 정신에 가리키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켜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 말 이외의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는 것이다.⁵⁾

아우구스티누스가 언어 만으로는 아무 것도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다는 교육의 모순적 상황을 제기한 것은 교수학습의 진정한 과정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 있다.

3) 위의책, III. 6., 178쪽.

4) 위의책, X. 34. 216쪽.

5) 위의책, XI. 36. 217쪽.

2. 플라톤의 회상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

실물로 가르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어로도 가르칠 수 없다면 교수학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의 제기와 답을 제시한 최초의 사상가는 플라톤이었다. 플라톤은 기하학적 정리와 같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진리는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교수학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교사는 학생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학생이 전생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회상(recollection)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즉 인간은 이데아적 진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알고 있던 것을 회상할 뿐이란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과 거의 같은 교수학습론을 주장 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학습이란 단순히 기억해 내는 것(remembering) 또는 상기 하는 것(recalling)이라고 하는 나의 진술은 영식(soul)이 과거에 다른 몸(전신前身)에 있었거나, 혹은 현생(現生)의 몸의 안 또는 밖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사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⁶⁾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생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remembering)해낸다’란 진술의 의미를 플라톤의 회상(recollection)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모든 지혜가 항상 주어져 있으나 잠재적인 상태로 있어 들어나 있지 않아 ‘기억해내지 못 한다’라고 본다. 다시 말해 보편 영속성의 진리들은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에 속하며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 인간 각자의 마음에 주어져 있으나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이런 진리들은 기억(memory)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은 이런 뜻을 포함 한다. 기억해냄(remembering)은 이런 들어나지 않은 진리를 신적조명(divine illumination)으로 비추어 학습자 자신의 의식에 들어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 보는 것은 빛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적조명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사론』의 다음 인용은 그의 교수학습론을 대변한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sapientia)에 대해 우리는 아마 말로 상담하도록 강요되고 있지만, 우리는 밖에서 올리는 그 말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깊숙이 정신을 관장하는 진리와 상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상담할 분은 우리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즉 불변하는 하느님의 능력, 영원한 지혜인 것이다. 실제로 모든 이성적인 영혼은 그분(영원한 지혜, 그리스도)에게 묻는다.⁷⁾

6) A. Augustinus, *Retractionum*, 1. 8, 재인용 R. H. Nash, *The light of the mind : St. Augustine's theory of knowledge*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69), p.82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는 그리스도 즉 진리의 빛 뿐이다. 그리스도가 빛이란 것은 요한 복음서에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과 같다. 이 빛이 신적조명이며, 신적조명은 그의 초기 저작인 『교사론』에서 뿐만 아니라 후기 그의 대표작인 『고백록』과 『삼위일체』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진다. 이에 대한 후기 사상가들의 해석도 또한 다양하다.

IV. 신적조명과 삼위일체

1. ‘내면의 빛’에 대한 해석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보는 빛은 경험적 지식의 근본이 된다. 지혜는 감각을 통해서나 교사의 가르침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지만 감각적 빛을 비유하여 정신적인 ‘내면의 빛’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써오던 방법이다.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는 플라톤의 동굴속에서 빛과 그림자의 비유이다.⁸⁾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감각적으로 보는 빛을 지칭하는 반면 요한 복음서 1장에 나오는 빛은 ‘내면의 빛’에 가깝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신국론』에서 빛과 그리스도 관계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 빛 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요 1:6-9)라는 성경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요한이 가진 바와 같은 이성적이거나 지적인 혼이 그 자체로서는 빛이 될 수 없고 참된 빛이신 다른 존재로부터 광명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요한 스스로도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증거할 때,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⁹⁾

감각적 세계의 빛에서 ‘태양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능동적 창조자인 반면에 ‘달 빛’은 단지 받은 빛을 반사만 할 수 있는 수동적인 빛이다. ‘태양 빛’과 ‘달 빛’을 비유로 들면 ‘하느님의 빛’은 태양 빛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정신적 ‘내면의 빛’은 ‘달 빛’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비유로는 하느님은 빛 자체 이시고 인간 내면의 빛은 하느님의 빛이 비추어진 이차적 밝음이다. 인간이 진리를 기억해냄(remembering)은 하느님의 빛이

7) *De magistro*, XI. 38. 219쪽.

8) Platon, *The Republic*, Translated by W. Rouse (New American Library, Inc., New York, 1956)

9) A. Augustinus, *De Civitate Dei*, 조호연 김종흡 옮김. 『신국론』. (서울 : 현대지성사. 2002), 482 쪽.

비추어 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과정에 비유로 쓰이는 빛 즉 ‘내면의 빛’은 다양하게 쓰이는 바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내면의 빛’을 ‘이성의 빛(lume di ragione)’, ‘지성의 빛(lumen dell'intelligenza)’, ‘은총의 빛(lume della grazia)’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⁰⁾ ‘은총의 빛’은 하느님의 빛으로 ‘태양의 빛’에 해당하는 근원적인 빛이다. 다른 두 가지는 이 빛이 인간의 내면에 비추어진 ‘달 빛’이다. ‘이성의 빛’은 색관(corporeal vision)이나 지식(scientia) 또는 하향 이지(ratio inferior)의 비유로서 가시적 사물을 파악하는 기능이다. ‘지성의 빛’은 지성관(intellectual vision) 또는 상향 이지(ratio superior)의 기능으로 지혜(sapientia)를 얻는 능력이다. 지식이든 지성이든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가 인간적 이지(ratio hominis)에 비취서 진리적 감응을 받는다는 것이 신적조명설의 핵심이며, 이 세가지 구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과 일치하는 체계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조명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여 역사적으로 크게 네 가지 학설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학파는 지성관(intellectual vision)을 곧 신의 빛(divine light)으로 보았다. 프란치스코 학파는 신의 빛은 하느님 자신이며 이 빛이 인간의 영식에 진리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형식론자들은 신의 빛은 진리의 내용이 아니고, 확실성 필연성과 같은 형식에만 관여한다고 논지를 폈다. 끝으로 존재론적 해석은 신적조명에 의해 인간이 신적 이지에 있는 진리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¹⁾ 본 논문에서는 철학적 논의 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의거하여 신적조명과 인식과 교수학습의 삼원구조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인식의 3중 구조와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대표저술 『삼위일체론』에서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찾기 위해서 인식의 3중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해 올라간다. 인식의 3중 구조란 인식의 주체, 객체, 행위 3자를 의미한다.

제 1 단계 : 사물을 관찰하는 감각적 인식의 3중 구조이다

우리는 한 물체를 볼 때에,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하며, 이 것은 아주 쉬운 작업이다. 즉, 첫째는 우리가 보는 물건(대상)인데, 둘이나 불꽃이나 그 밖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사람이 보기 전부터 이미 존재할 수 있다. 둘째는 시상(視像)인데, 이것은 눈앞에 있는 대상을 지각하기 전에는 없던 것이다. 셋째는 대상이 보이는 동안 눈 안에 있는 시상에 고정시키는 힘, 즉 마음의 주의력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동시에 성격이 다르다.¹²⁾

10) 정승익,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illuminatio)’에 대하여』, 『누리와 말씀』, vol. No.31 (인천카톨릭대학교 복음화 연구소, 2012), 132 쪽.

11) R. Nash, 앞의책, 103-123 쪽.

제 2 단계 :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3중 구조이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사물을 기억속에서 회상하며 보는 경우로 제1단계와 유사한 구조이다.

제 3 단계 : 지식(scientia)에서의 3중 구조로 인간 자신의 기억, 이해력, 의지(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이 셋은 세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며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세 실체가 아니라 한 실체이다. 생명과 마음과 실체라고 부르는 기억은 그 자체에 관해서 그렇게 부르며 기억이라는 이름은 어떤 것과의 관계로 부르는 것이다. 이해력과 의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어떤 것과의 관계로 이해력이라고 하며 의지라고 하지만, 그 자체에 관해서는 둘이 다 생명이며 마음이며 본질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 셋은 한 생명과 한 마음과 한 본질적 존재인 점에서 하나이며, 그 자체들에 관해서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복수로 부르지 않고 함께 단수로 부른다.¹²⁾

제 4 단계 : 지혜(sapientia)에서의 3중 구조이다. 하느님에 관한 기억, 이해력, 사랑의 구조이다. 하느님 삼위일체를 닮은 최상위 모형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적인 심리적 삼위일체론이다. 이러한 인식의 삼중 구조 모형은 삼위일체를 닮기는 했으나 그것은 흔적에 불과하여 불완전하다.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정관(靜觀)하려면 심리적 삼중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느님의 빛, 신적조명이 들어오는 소이다.

3. 신적조명설과 삼위일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인간정신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가 바로 신적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장 낮은 제 1단계에서 사물을 보는 인식의 삼중 구조에서 태양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적 인식의 삼중 구조에서도 태양 빛에 상응하는 정신적 조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기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양 빛의 조명하에 ‘봄’ 이란 인식 자체가 가능하듯이, 내면적 인식 일반에서도 ‘생각하는 자아’ 가 ‘생각의 객체가 되는 자아’를 바라볼 수 있게하는 ‘비물질적 빛’이 있어야 한다.

12) A. Augustinus, *De Trinitate*, XI. 2.2., 김종흡 옮김.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295-296쪽.

13) 위의책, X. 11. 18. 291쪽.

그것보다 우리는 마음의 정신적인 부분이 원래 정신적인 사물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창조주의 섭리로, 자연적인 질서에는 정신적인 사물에 속한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은 정신적인 마음이 그 특유한 비물질적인 빛으로써 볼 수 있다. 육체의 눈이 곁에 있는 물건들을 물질적인 빛으로 보는 것과 같다.¹⁴⁾

그러면 이 근본적인 빛의 본성은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빛이 곧 만물을 지은 말씀(성부)이고 육신을 취하신 분(성자)이란 요한복음을 들어 설명한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5). 여기서 “어두움”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의미한다. 악한 욕망과 불신앙으로 눈이 어두운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지은 말씀이 이 인간들을 돌보며 치유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요 1:14). 우리가 빛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나눠 받는다는 뜻이며, 사람들의 빛이신 생명을 나눠 받는다는 뜻이다.¹⁵⁾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요. 1:9)는 것과 같이 진리의 빛 자체이신 하느님이 육신을 취하시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심리학적 인식에서 삼중 구조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빛 역시 삼중 구조가 있는 바 ‘존재자체-진리자체-의지작용’이다. 존재자체인 성부, 진리자체인 성자, 의지(사랑)자체인 성령이 곧 삼위일체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곧 신적조명의 원천이 되는 빛이다.

즉 하느님께서 지성적인 분이시고, 법칙들의 원칙들 역시 지성적인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둘은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빛처럼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것들은 빛을 받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다. 따라서 누구나 다 틀림없이 옳다고 여기는 지식의 상대적인 개념들도, 만일 태양과도 같은 것으로부터 조명을 받지 않고는, 그 무엇도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태양(의 비유)에서 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 태양이(다른 것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대가 알기를 원하는 오류 없으신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세 원칙들로 말할 수 있다. 즉,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 깨달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¹⁶⁾

14) 위의책, XII. 15. 24. 334 쪽.

15) 위의책, IV. 2.4., 137 쪽.

16) A. Augustinus, *Soliloquia*, I.8.15, 재인용, 정승익. 앞의논문, 137 쪽.

V. 신적조명과 신앙교육

1. 행복과 지혜

아우구스티누스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의 추구이며, 행복의 추구는 불변하는 인간의 특징으로 보았다. 그가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의 주요 저술중 시기적으로 맨 먼저 나온 것이 『행복론(De Beata vita)』이란 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 대화집은 고대 철학 사상과 그리스도교와 조화를 시도 하였다. 그는 로마의 철학자인 바로(Varro)의 ‘철학함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란 견해를 받아들였다. 행복의 추구가 불변하는 인간의 특징이란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적인 철학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다. 『행복론』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또 다른 초기 저술인 『자유지의론』에서 윤리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행복은 진리와 선(善)과 불가분리의 하나임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진리 속에서 최고선이 인식되고 견지되며, 그 진리가 곧 지혜인 만큼, 우리는 진리 속에서 최고선을 식별하고 견지하고 최고선을 향유토록 하자. 최고선을 향유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바로 이 진리가 저 모든 선들을(선한 것으로) 밝혀주는데, 저 선들은 곧 참된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저 선들을) 인식하면서(저 선들 가운데) 하나씩 또는 여럿을 골라서 향유하는 것이다.¹⁷⁾

행복은 진리로부터 얻어지는데, 여기서 진리란 가변적인 사물에 관한 지식(scientia)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불변한 하느님의 진리 즉 지혜(sapientia)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의 목표는 하느님을 믿고 은혜 속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향유하고 최고의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의 행복 철학의 관심은 후기 대표 저술인 『삼위일체론』까지 지속된다. 『삼위일체론』의 마지막 제15권에서 하느님이 곧 행복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피조물 보다 조물주를 물론 더 높이 여기므로, 그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지각하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죽거나 부패하거나 변하실 수 없으며; 물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며 가장 의로우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선하며 가장 행복한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¹⁸⁾

17) A.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I, XIII, 36, 성염 역주, 『자유지의론』, (왜관 : 분도출판사, 1998), 227 쪽.

18) *De Trinitate*, XV, 4, 6, 411쪽.

2. 현대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신앙교육의 필요성

현대 학교교육은 초 중등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식 중심의 교육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구분에 의하면 낮은 단계인(1단계 및 2단계) 외적인간의 사물에 관한 감각과 정보를 다루는 교육은 과학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문 사회교육까지도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내적인간의 하향이지(下向理智) 수준을 다루는 것이(3단계) 심리학 철학 등의 일부 인문교양 교육이다.

학교교육은 외적인간의 지식(scientia)교육과 내적인간의 역시 지식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인문학 분야들인 철학, 심리학, 윤리도덕 교육마저도 하느님이나 신앙이 없는 인간의 정신문제까지만 다룬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교육은 지혜(sapientia)를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늘리는 것일 뿐이므로 ‘어리석다’고 본다

마음의 이 삼위일체는 마음이 자체를 이해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은 또한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 자체가 지혜롭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자체를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체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느님을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해야 한다.¹⁹⁾

여기서 일반 인식론적 관점과 신앙교육적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마음이 자체를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오직 하느님을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해야 지혜롭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식(scientia)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인간은 지혜(sapientia)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음’에 이른다고 한 것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점은 현대 사회의 학교교육의 지식 편중으로 학생들이 오히려 불행과 불안을 겪는다는 점에서 실증된다고 볼 수 있다.

지식 중심의 치열한 경쟁 교육은 청소년의 인격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론이고, 삶의 근본 목적을 경제적 부의 축적으로 착각하고 도덕과 가치관의 붕괴로 정신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지식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전도 시키고 있다.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오히려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지식충을 양산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인격적 관계에서 단절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 중심의 현대교육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중심의 신앙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삶과 교육의 근본 목적은 행복과 진리의 추구임을 밝히고, 궁극적 진리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19) *De Trinitate*, XIV. 12. 15. 391 쪽.

한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지식 교육의 단점을 지적하고 하느님 신앙으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나는 벌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지혜로운 자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으니, 「나의 무지를」 슬퍼하기는커녕 지식을 뽐내고 있었나이다. 하오니 겸손의 바탕 위에 세워질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었겠나이까?... 교만한 자기만족과 겸손한 신앙고백의 차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알면서도 그리로 가는 길을 모르는 자들과, 복된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거기서 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는 분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나이다.²⁰⁾

인간 삶의 본래의 목적인 행복 또는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는 교육은 하느님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의 핵심이다.

3. 신앙교육과 신적조명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식으로는 하느님 신앙의 핵심에 도달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변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사물들로부터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에게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삶에서 핵심이라고 보았고,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인 신적조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의 초기 저술인 『자유지의론』에서 신적조명의 필요성을 논했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악을 선택하는 것은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영원불변의 진리인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밝혀주는 신적조명이 결여된 때문이란 것이다. 인간은 사물을 향한 욕망으로 ‘자유의지’를 잘 못 사용하여 악을 선택 한다. 이 악한 마음을 영원한 선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인 ‘신적조명’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신적조명’은 은총인 것이지 인간의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 중심의 일반교육에서 지혜 중심의 신앙교육으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조명이다. 지혜란 영원불변의 진리를 앎으로써 얻는 것인데, 이러한 진리들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 인간의 마음에 이미 주어져 있으나 보지 못할 뿐이다. 의식에 들어나지 않은 진리를 신적조명에 의해 비추어 줌으로써 학습자의 의식에 들어내는 것이 지혜의 학습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 영식(soul)안에 이미 있는 진리를 하느님의 빛으로 학습자 스스로 보는 것이다. 교사는 언어를 통해 진리를 보도록 도와줄 뿐이며 진정한 교사는 진리의 빛이신 하느님 삼위 일체 뿐이다. 그리스도가 빛이란 것은 요한복음서 (1장9절)에서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20) A. Augustinus, *Confessionum*, VII, 20, 26, 김광채 옮김, 『고백록』,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201-202 쪽.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에 근거한다.

신앙교육의 실천적 측면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언가 인식에 도달 했다는 것은 하느님의 조명에 영향을 받고 무언가를 영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분을 향해 마음의 눈을 고정 시키는 등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는 지속적인 조명의 은총 덕분이다.²¹⁾ 신앙교육이 이론적 측면인 지혜의 획득에서 하느님의 은총인 신적조명이 필수적이듯이 실천적 측면인 기도에서도 역시 하느님의 빛이 은총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신적조명이 기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도만이 유일한 길도 아니다. 신앙의 구체적 활동 중 중요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관상을 들 수 있다. 관상의 길에서는 묵상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자아를 비우는 정화가 일어난다. 자기 정화의 비움을 통해 밝음의 빛이 들어 옴이 신적 조명이다. 이 단계를 지나 하느님과 하나 되는 자아초월과 일체의 과정이 따른다. 이상의 정화 - 조명 - 일체의 단계를 통해 신앙의 깊이가 고양되며, 이것이 신앙 교육의 극치라 할 수 있다.

VI. 결론

신앙교육은 교육적 측면과 신앙적 측면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을 그의 「교사론」에서 지혜학습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사상을 「삼위일체론」에서 인식의 삼중구조를 중심으로 조감하였다. 그리고 이 양 측면의 공통요소로 등장하는 ‘신적조명’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현대 사회의 신앙교육에서 갖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조명설은 초기 저작인 「행복론」, 「자유의지론」, 「교사론」에서부터 후기 대표저술인 「고백록」, 「신국론」, 「삼위일체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전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을 얻는 것인데, 이 행복은 일시적인 향락이 아닌 영원 불변한 최고의 행복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저술들은 바로 이 궁극적 행복에 관한 일련의 다양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선악의 선택에 관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결정된다는 「자유의지론」은 물론, 행복은 영원한 진리를 봄으로써 지혜를 배울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교사론」에서도 행복과 하느님 신앙이 주요 관심이었지만, 후기 대표 저술 3편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신학적 관점에서 행복의 원천은 하느님임을 밝히고 있다.

21) 정승익, 앞의논문. 138-139 쪽.

영원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 불변의 진리를 알아야 하며,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지혜(sapientia)’라고 하였다. 이는 각종 사물에 대한 앎인 ‘지식(scientia)’과는 질적으로 다른 앎이다. 지식은 언어나 실물을 이용한 교수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혜는 이러한 통상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양에서는 플라톤 등이 이미 주장 하였던 바이고, 불교, 특히 선(禪)불교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플라톤 등 헬레니즘 전통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착한 헤브라이즘이나 동양의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는 이 지혜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그런데 왜 지혜를 못 보는가와 어떻게 보게 되는가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플라톤은 전생부터 알고 있던 것인데, 회상을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교사가 회상토록 도와 준다는 관점이다. 불교는 중생의 무명업장(無明業障) 때문에 못보는 것이므로 무명을 깨면 원래 자신의 밝음을 보게 된다는 관점이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미 하느님의 진리가 내재되어 있으나 못보는 것인데, 이를 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빛으로 비취줘야 한다(神的照明)’는 독창적 학설을 내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신적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교수 학습론적 관점을 넘어 그의 신앙론으로 전환이 들어온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은총을 받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신앙 행위는 기도이다. 즉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을 받아 인간에 내재된 궁극적 진리를 보게되고 이것이 지혜의 학습이다.

인간에 내재된 진리 또한 하느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부여한 것으로 바로 삼위일체가 마음에 그 흔적을 남긴 것이다. 인간의 인식의 3중 구조가 바로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내면을 관(觀)함으로써 인식의 3중 구조를 볼 수 있게 되고 신적조명의 은총으로 이를 넘어 하느님의 삼위일체까지 이르게 된다.

현대교육은 지식 교육에 편중됨으로써 개인의 불행은 물론 사회적 불안과 인류전체의 위기까지 만연하게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적 ‘지혜’ 교육을 되살림으로써 인간 모두의 소망인 진정한 행복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혜는 하느님의 진리를 아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치유와 현대교육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교육과 삼위일체 신앙을 새롭게 고찰하여 현 시대에 맞는 신앙교육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희,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사상에 있어서 언어와 신적 조명설의 관계」, 『기독교 철학 연구』, 제6집,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 연구소, 2006).
- 김재은, 「성 어거스틴의 교육론」, 『신학과 세계』 33, (감리교신학대학교, 1996).
- 박승찬, 「가톨릭 교육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 『카톨릭철학』, 17 (한국카톨릭철학회, 2011).
- _____, 「참된 교육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실천적 조언」, 『카톨릭 신학과 사상』, No.69. (신학과 사상학회, 2012).
- 양명수, 『어거스틴의 인식론』, 서울 : 한들출판사, 1999.
- 정승익,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illuminatio)’에 대하여」, 『누리와 말씀』, No.31. (인천카톨릭대학교 복음화 연구소, 2012).
- 정현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6.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이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2.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조명설의 종교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6.
- 주영흠,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7.
- _____, 「Augustinus의 교사론 연구: 기호학습과 인식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Vol. No.15. (총신대학교, 2005).
- Augustinus A., *Confessionum*, 최민순 옮김, 『고백록』,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 _____, *Confessionum*, 김광채 옮김, 『고백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_____, *De Civitate Dei*, 조호연 김종흠 옮김, 『신국론』, 서울: 현대지성사, 2002.
- _____, *De Beata vita*, 박주영 옮김 『행복론』, 서울: 누멘, 2010.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김종흠 옮김, 『기독교교육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 분도출판사, 1989.
- _____,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주, 『자유이지론』,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_____, *De Magistro*, 김영국 역, 『교사론』, 어거스틴 저작 집 제2권, 서울 : 소망사, 1983.
- _____, *De Trinitate*, 김종흠 옮김,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_____, *De Vera Religione*, 김영국 역, 『참 종교론』, 어거스틴저작집 제2권, 서울 : 소망사, 1983.
- Babcock W.S., *The Ethics of St. Augustine*, 문시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8.
- Nash Ronald H., *The Light of the Mind: St. Augustine's Theory of Knowledge*,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69.
- Platon, *The Republic*, Translated by W. Rouse, New American Library, Inc., New York, 1956.

원고접수일: 2014년 1월 12일 심사일: 201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1일

연구자소개: 정현숙

-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영성교육, 종교와 심리, 성인들의 영성교육
 - ③ 주요논저: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원리의 원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 ④ E-mail: hschung@suwon.ac.kr
-

Abstract

Faith-education and Augustine's Divine Illumination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Augustine proposed his unique theory of 'divine illumination' as the central concept in his thoughts on education and theology, which was beyond the poetic metaphor or symbol of light. In his book on education, 「De Magistro」 he classified knowledge to two classes, namely, 'wisdom (sapientia)' on eternal immutable truth and 'science (scientia)' on sensational experiences. He demonstrated the impossibility of teaching wisdom with signs, words, or showing the materials. It was the common claims of both Platon and Augustine that the eternal immutable universal truths are already present in the inner mind of the learner. Platon argued that the learner recollected his knowledge of former lives, but Augustine did not admit past life. Instead, Augustine insisted that the learner remembered the truth in his inner mind thanks to the light illuminated by God's grace.

His theological thoughts were presented in 「De Trinitate」 and connected to his pedagogical thoughts via his epistemology. His originality was the observation of the structural similarity of the epistemological triplet of human reason to the trinity of God as an imprint. The relevance of light in the trinity was the metaphor of the Sun-light in the cognition of material objects : The recognition of the ultimate truth is possible due to the God's light. He established principles of his faith-education through his theory on divine illumination which was given by the grace of God. We considered the significance of Augustine's 'wisdom-education' with respect to the contemporary needs of faith-education.

Key words: Divine illumination, Wisdom(Sapientia), Faith-education, Scientia, De Trinitate (Trinity)